

Hettlich 의원님의 연설문

오늘 이번 쌀과 물은 처음 생각할 때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하북구도에 대해서, 아귀막으로 해너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록 별다른  
경험에 기초해서 먼저 애매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지 문제가 귀국 반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매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업 수확 제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현상에 나가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귀국 농업이 식물을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생산에서의 혁신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현량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연료와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계획들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이 없으면 농기계도 생산하지 못하고 비료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현재 수확 배급 상황을 보면 단기적인 호락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연료공급, 비료공급과 농기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확고를 옥텟하게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북조선은 식육수입을 수입으로부터 증감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sup>개선적으로</sup> 높은 수율이 ~~과습~~ ~~비율~~  
있기 때문에 옥텟수적에도 큰 부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육은 다만  
책우기만 하면 너무 안라카워서 비로음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에너지 공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귀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력, 풍력,  
저열, 태양열 및 생물 에너지를 대체하여 전열 및  
에너지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도이월관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sup>개</sup>유익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면 북조선의 프락프르 및 농기계  
생산기지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러운 더운터 각 정적하고  
화공을 내어 그어고 제대 할수있는 기계화를 통하여 그어고 또한  
수확 및 노갈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와 비료사용도 이에 기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된, 통합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천해온 독일과 미국

프랑스에서 경험하는 구상대응은 바로 이러한 것일겁니다. 이 사항대응은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곳에서 이것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일겁니다.

바로 이러한 분야에서 앞으로 독일과 조선 사이에 협조를 심화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농업이 잘 뒤섞이기 위해서 현대적인 하부구조가

필요합니다. 교통망, 수도를 증강, 채석시설들과 같은 하부구조

시설이 잘 들어야 경제가 잘 되고 원자재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쌍방향으로 도와줄수있는 협조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간문으로는 자세하게 언급할수없는 몇가지 분야로

구체적으로 도와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까지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